

잊혀진 宮中の 삶 기록한 金用淑 교수

朝鮮朝宮中風俗研究
— 志社/A5/480면/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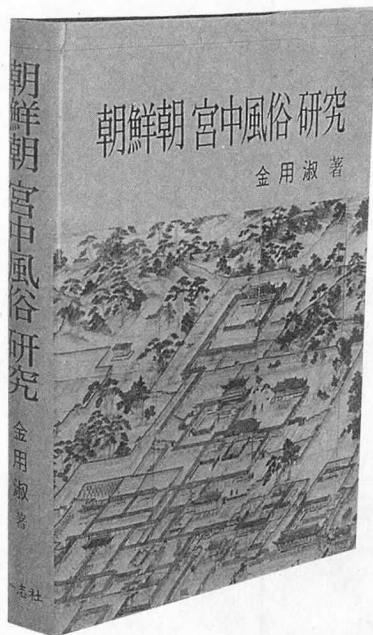
60여년간 궁중문학과, 풍속에 관한 책만을 펴낸 국문학자 金用淑씨(63세·숙명여대 문과 대학장)는 최근 또 「朝鮮朝宮中風俗研究」를 펴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다 사망하여 前時代의 인물이 되어버린 韓末의 궁녀 등 20여명을 인터뷰하여 엮은 이 책은 궁중 풍속연구라는 한정된 주제의 학술서라기보다는 한 국문학자의 학술적 집념에 의해 정리된 비운의 朝鮮朝史의 산 증언이며 희귀기록. 이러한 점이 평가되어 최근 金교수는 제32회 학술원상을 받았다.

金用淑교수는 일제시대 때 일본문학에 뜻을 두었으나, 신학문을 공부하고 민족의식이 강했던 부친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고 한다. 경거여고를 졸업한 지 10년만인 1954년에 숙명여대에 진학한 후 지금까지 국문학 연구에 전념해 왔다.

『특히 궁중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일제하 교육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이 시절 尹妃를 직접 목격했던 일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지요』 하고 金用淑교수는 말한다. 매년 겨울이면 여학교에서 단체로 창경궁 연못에 스케이트를 지지러 가곤 했는데, 언젠가 한번은 마침 尹妃가 수정각에 나타났다고. 윤비의 뽀얀 얼굴과 20여명이나 되는 내인들의 당당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보이듯 생생하다고 회고한다.

金用淑교수는 1958년, 궁중문학과 풍속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던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헌수집을 위해 창경원안의 장서각에서 연구, 1960년 7월 尹妃가 낙선재로 환궁하면서 이곳을 출입하기 시작했고 인터뷰 취재를 통해 표리를 맞추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의 첫 결실이 바로 1961년, 「향토서술」지에 발표된 논문 「궁중용어연구」

인터뷰의 대상은 생존해 있던 궁인 7~8명, 그 외 궁궐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총 20여명 정도. 金用淑교수는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처럼 간편한 녹음기가 없던 때라,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던 커다란 릴테이프 녹음기를 일본에서 구입해 메고 다니느라 어깨가 아팠습니다. 이때 기록한 테이프와 노트가 수십 권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잦은 이사로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아 아쉽습니다』

金用淑교수가 만나 본 궁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金교수는 특히 金命吉 상궁이나 고종을 가까이 모셨던 光華堂 李씨, 三祝堂 金씨 같은 분들이 지니고 있던 품위와 아름다움, 바른 몸가짐을 지적한다. 金상궁은 열세살의 나이에 윤비와 함께 입궁, 황태자비와 함께 영어와 일어를 배우기도 했다고.

궁녀들은 무너져가는 왕조의 운명을 어떻게 보았을까.

『사실 대다수의 궁녀들은 날카로운 역사의식이 없었지요. 상전의식만이 투철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당시의 정세, 왕조의 비운을 애 통히 느끼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궁녀의 눈에 비친 고종의 모습을 金교수는 三祝堂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고종은 평상시 뉘우면 한시도 방이나 대청에 좌정해 계시지 않았다 한다. 이유를 물은즉 三祝堂은 대답한다. 「무슨 思慮를 하시는건지



金用淑교수는 이 방면의 연구로 1971년 한국출판문화상과 금년도 학술원상을 받았다.

또는 운동이신지 늘 그러시더이다」 또 덕수궁으로 移御한 후 밤에는 전혀 寢睡를 못하고 「새벽까지 소리가 나고야 비로소 기소(자리)에 들으셨다」고 하였다.」(「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193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궁녀들을 수소문해

**『텔레비전을 보면 궁중은 매일매일이 잔칫날이지
故 三祝堂 金씨 (高宗의 후궁,
72년까지 생존)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는 평상복과 소례복의 구별없음을 꼬집은 말이다.**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없이 풀어놓는 그네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고충이었다면 고충. 오랜 세월 고생과 외로움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들이라 그만큼 사람이 그리웠던 모양이라고 金用淑교수는 말한다. 그래도 길고 긴 한탄과 자랑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던다. 內人을 「나인」으로 읽는다는 세간의 지식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내인」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궁중에 대한 지식 중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사소한 일이지만 TV 사극에서 잦은 묘사상의 오류도 밝혀냈다.

『텔레비전을 보면 궁중은 매일매일이 잔칫날이지』故 三祝堂 金씨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는 고종의 후궁으로 1972년까지 생존했었다.) 이는 평상복과 소례복의 구별없음을 꼬집은 말이다.」(241면)

인터뷰상의 어려움을 제외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이번 저서 뒤편에 컬러 도판으로 첨부돼 있는 「東闕圖」작성시에 겪었던 고생. 이 「東闕圖」는 현재 상당히 소실되어 버린 창덕궁과 창경궁의 원형을 보여주는 소중한 것으로, 1820년대 작자미상의 원본지도는 고려대 박물관에 있지만 각각 이름이 명기돼 있지 않

아서 부산 동아대의 같은 지도를 대조, 이름을 기입해 넣었다. 그런데 이름이 명기된 지도를 보여주지 않아 전시관 밖에서 손전등과 망원경으로 실내를 비추어 가며 수백번씩 확인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추억이다.

金用淑교수는 이처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룩해낸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1971년에는 「李朝 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로 한국출판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그의 저서는 한많은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德惠翁主일화는 왕실의 비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설움을 보여주는 듯하다.

『타국 땅의 영어의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덕혜옹주가 구출되어 고국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은 1962년 1월 26일. 그때 옹주의 나이 50세,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단발머리 소녀가 낯간만 멍한 눈길로 空洞과 같이 허전한 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릴 때 길러 준 유모 邊씨가 당시 아직도 생존중이어서 「아기씨, 아기씨」하며 눈물로써 맞이해 준 점이다.」(448면)

결코 먼 시대가 아니면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金用淑교수의 기록과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조의 궁중생활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료를 보충할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문헌자료를 더욱 탐구하고 활용하여 보충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우재단의 기금으로 女俗史를 연구하고 있다는 金교수는 이를 통시적으로 다루는 한편, 조선조 女俗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집필을 시작해야 할 텐데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군요』 또 다른 결실을 맺기 위한 金교수의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뜨거우리라 생각된다.

— 오애리 기자